아띠

2011 vol.19
www.korea1391.org

현황보고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

전문가 칼럼
폭행에 시달리는 아이들, 누구의 책임인가?

5월 아동학대집중예방의 달 특집
2010 아동학대현황보고 세미나

함께하는 이야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Network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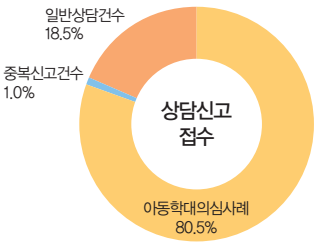
특별한 이야기
아동학대후유증 및 정신장애 관련 연재



139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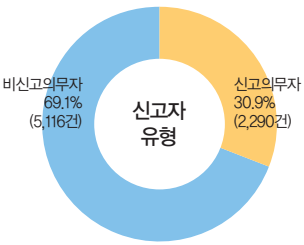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매년 한 해 동안의 아동학대사례현황 자료를 분석하여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한 2010년 아동학대 현황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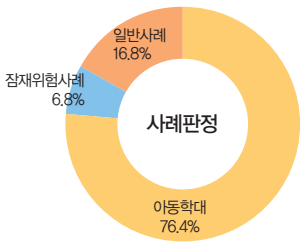
상담신고접수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9,199건이며, 이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7,406건(80.5%), 중복신고건수는 89건(1.0%), 일반상담건수는 1,704건(18.5%)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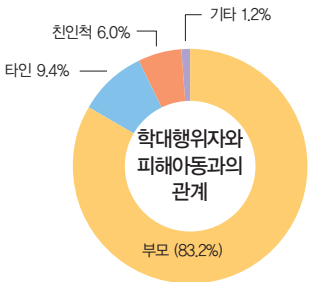
신고자 유형

아동복지법 제26조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정 의무를 가진 신고의무자가 명시되어 있다.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되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30.9% (2,290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69.1%(5,116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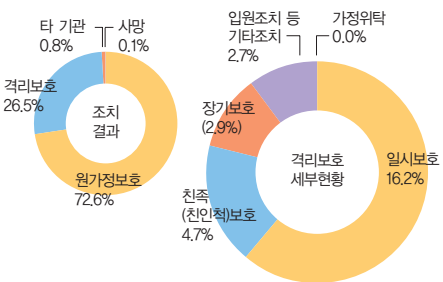
사례판정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접수된 사례들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판정된다. 2010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657건(76.4%), 잠재위험사례 506건(6.8%), 일반사례 1,243건(16.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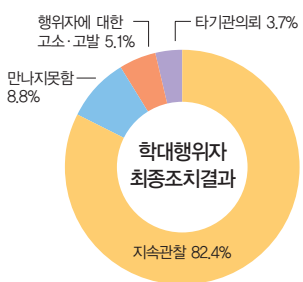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크게 부모(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친인척, 타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0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5,657건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4,709건으로 전체의 83.2%를 차지하였고, 타인이 534건으로 9.4%, 친인척이 337건으로 6.0%, 기타가 70건으로 1.2%에 해당하였다. 2010년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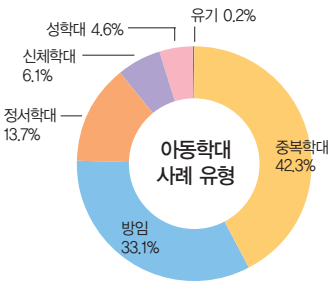
2010년에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 5,657건의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 4,108건(72.6%), 격리보호 1,500건(26.5%),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초기에 타 기관으로 의뢰한 경우가 48건(0.8%), 초기에 아동이 사망한 경우가 1건(0.1%)으로 파악되었다. 초기에 격리보호조치된 아동들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일시보호가 916건(16.2%), 친족(친인척)보호 266건(4.7%), 장기보호가 163건(2.9%), 입원조치 등 기타조치 155건(2.7%), 가정위탁 0건(0.0%)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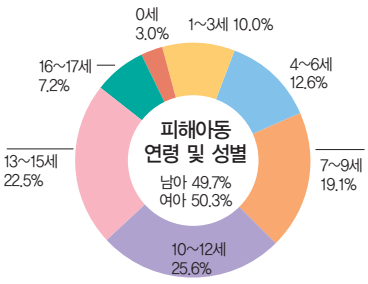
2010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5,657건 가운데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지속관찰이 4,660건(82.4%), 만나지못함이 497건(8.8%), 행위자에 대한 고소 · 고발이 290건(5.1%), 타기관의뢰가 210건(3.7%)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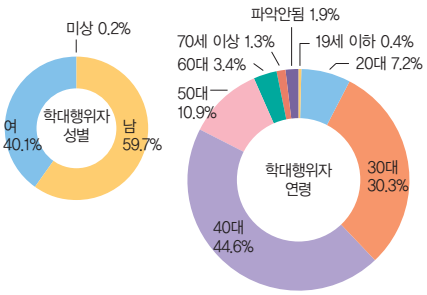
아동학대사례 유형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건수를 파악한 결과, 중복학대가 2,394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870건(33.1%), 정서학대 773건(13.7%), 신체학대 348건(6.1%), 성학대 258건(4.6%), 유기 14건(0.2%)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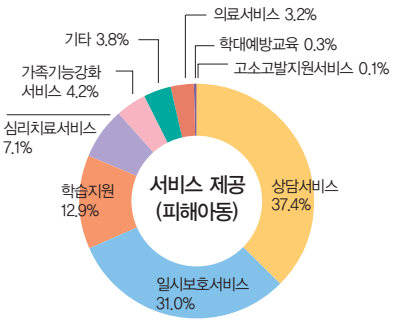
피해아동연령 및 성별

피해아동의 성별에 따른 비율은 남아가 2,810건(49.7%), 여아가 2,847건(50.3%)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1,449건(25.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만 7~9세가 1,082건(19.1%)으로 많아 초등학교 학생이 전체 피해아동의 44.7%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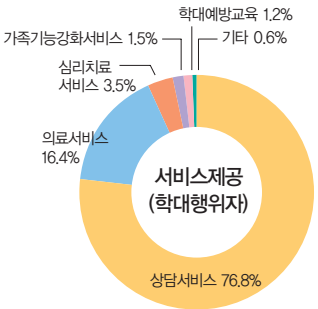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는 남성이 3,375건(59.7%), 여성이 2,272건(40.1%)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5배 많았다. 학대행위자 연령은 만 40~49세가 2,524건(44.6%), 만 30~39세가 1,713건(30.3%)으로 주로 초등학교 학부모 나이에 해당하는 30-40대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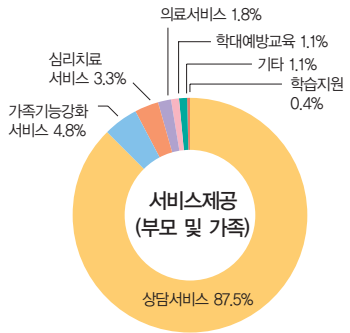
서비스 제공(피해아동)

2010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총 서비스는 305,270회이며, 학대피해아동에게 가장 많이 제공한 서비스 항목은 상담서비스로 114,300회(37.4%)로 나타났다. 일시보호서비스 94,593회(31.0%), 학습지원 39,257회(12.9%), 심리치료서비스 21,632회(7.1%), 가족기능강화서비스 12,943회(4.2%), 기타 11,467회(3.8%), 의료서비스 9,870회(3.2%), 학대예방교육 996회(0.3%), 고소고발지원서비스는 212회(0.1%) 제공되었다.



서비스제공(학대행위자)

2010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48,050회이며,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많이 제공한 서비스 항목은 상담서비스로 36,881(76.8%)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7,879회(16.4%), 심리치료서비스 1,660회(3.5%),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726회(1.5%), 학대예방교육 569회(1.2%), 기타 335회(0.6%) 제공되었다.



서비스제공(부모 및 가족)

2010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아동의 비가해 부모와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34,632회이며, 가장 많이 제공한 서비스 항목은 상담서비스로 30,332회(87.5%) 나타났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1,656회(4.8%), 심리치료서비스 1,130회(3.3%), 의료서비스 602회(1.8%), 학대예방교육 379회(1.1%), 기타 396회(1.1%), 학습지원 137회(0.4%) 제공되었다.

전문가칼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폭행에 시달리는 아이들,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 달, 우리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3세 아동을 자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을 보았다. 심지어 아이의 시신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다. 애도의 마음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버지 자신의 잠을 방해할 정도로 자주 운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또 다른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아동의 사인은 장 파열에 따른 과도한 출혈이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부모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만 넘길 수 없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점 있다. 주변에서 아이가 얼마나 자주 맞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아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내지 않았다. 또한 일 년 넘게 매 맞는 아이를 위해 주민센터나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에도 알리지 않았다. 결국 아이는 학대로 사망했고 이 학대아동 사망사건의 책임은 부모뿐만 아니라 정부, 지역사회,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이즈음에서 영국의 '빅토리아 클림비 사건'이 떠오른다.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빅토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는 보호자의 책임만으로 치부하여 사건을 덮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구성되어 아동복지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이루어졌고, 경찰, 사회복지제도, 의료, 학교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서 학대아동사망사건 예방을 위한 진상 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빅토리아 클림비 사건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아동복지정책이 새롭게 재정비되었다.



**행위자 처벌을 위한 수사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가족 및 사회의 대응, 피해가족을 위한 지원방법,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덧붙여, 미국의 경우에도 아동사망사건 조사팀(CDR: Child Death Review team) 이 마련되어 있다. 아동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만 개입하지 않고 의사, 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 국회의원 등으로 이루어진 조사팀이 사망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사망원인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안에서 사망아동의 피해가족들을 지원하도록 연계하는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잠시 동안 국민들은 아동의 죽음을 애도하며 관심을 가질 뿐 결국은 행위자의 처벌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로 죽는 행위를 막기 위해 단순 처벌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행위자 처벌을 위한 수사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 가족 및 사회의 대응, 피해가족을 위한 지원방법, 궁극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야 하며, 관련기관들에서는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는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 및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민, 아동관련 기관, 국가의 노력을 통해 학대로 인해 꺼져버린 어린 생명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초석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모두는 고통 받는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실한 보호자'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월!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봄 햇살이 내리쬐어 새싹이 돋아나는 싱그러운 생명의 계절이다. 가정의 달이라고도 불리는 5월, 다채롭고 볼거리 많은 행사들이 가족들을 설레게 하고,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 선물 등으로 인해 행복에 겨워한다. 그러나 학대받는 아이들에게는 어둡고 외로운 그늘이며 따뜻함과는 거리가 먼 추운 겨울일 것이다. 보살핌받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와 주변의 무관심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심신의 상처로 얼룩져있다. 5월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보건복지부는 사람들이 나의 가정 뿐 아니라 이웃의 가정도 돌아볼 수 있는 의식전환과 함께 아동학대는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임을 인식시켜주고자 특별히 5월을 '아동학대집중예방의 달'로 선포하였고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 지면에서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현 아동보호체계에 대해 되짚어보는 2010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 세미나 현장을 소개하고 이후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향후 대책과 아동학대예방정책에 대해 논의한 내용들을 담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더욱 한발짝 쉽게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해본다.





5월 11일(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 국회의원 원희목 후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주관으로 2010 아동학대현황보고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학대 발생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학대피해아동보호체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예방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박용주 실장의 인사말과 원희목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첫 번째 주제로 '2001-2010년 주요통계로 보는 아동학대현황'에 대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이 발표하였다. 아동학대현황분석을 통해 파악한 현안문제로 신고율 감소, 신고의무자 신고율 부진,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대응체계 미약, 학대행위자 보호처분 및 친권제한 · 친권상실 미비 등을 꼽았으며 이에 대해 각계 각층 모두가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방향모색으로 '예방과 치료의 균형적 접근'에 대해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윤혜미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였다. 여기서 아동보호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으로는 사후개입적이고 징벌적인 현재의 아동보호제도에 예방이라는 사전적이고 가족친화적인 접근을 부가하여 아동의 안전과 양육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더욱 전진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따라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아동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확실한 정체성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기능을 더 강화하고 상담원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 부분에서 클라이언트 프로필의 다양화에 따른 상담원들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플랜으로 요구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학대아동 예방과 관련하여 각계전문가들이 전문분야에서 다각적인 시각으로 예방정책에 대해 되짚어 보았다.

첫 번째 토론으로 나성웅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이 아동학대예방정책의 방향으로 아동학대실태조사 실시,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를 통한 재학대발생율 감소, 다문화가정 지원 강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신고독려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김정민판사(서울가정법원)가 학대아동예방과 보호절차 개선방향으로 현행 학대아동 보호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및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즉 이번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이애주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보호처분에 대한 부분이 신설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아동학대사건이 종종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겨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가정폭력법으로 아동학대사건을 처리할 근거나 활용도가 미비하며 제대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는 다른 아동학대에 포커스를 맞춘 법이 필요하다고 재차 언급하였다.

세 번째 토론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정책, 어디까지 와 있는가' 라는 주제로 황옥경교수(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가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아동학대발견을 신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된 아동학대 위험군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key worker가 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공공사업으로 이관되어야만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이에 대한 공적책임여부가 확실해질 것이며 공공의 개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지나친 민간의존도를 낮추고 조사과정에서의 신변위협이나 행정권한의 한계 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중심의 역할에 대해 조윤영 관장(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역사회 내 연계체계 구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연계를 의무화해야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며 효과적인 예방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홍보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그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지원은 매우 인색하였던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예방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급선무의 과제로 꼽았다.

본 세미나에서 발표된 모든 안건들이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새로운 10년, 더 나아가 100년을 준비하고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훌륭한 방안과 제도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들이 이루어져 아동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받는 미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박용주 실장(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원희목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화정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윤혜미교수(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Network 이야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지원과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해 여러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아동학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 공유과 협력을 실천해왔다. 이번호에서는 중앙보육정보센터와 더바디샵과의 연계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보육정보센터 협약식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더바디샵 협약식

미래를 키우는 보육의 허브 '중앙보육정보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 구축,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효과적인 아동권리 옹호 등의 목적으로 지난 4월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보육시설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교류협력,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공익사업, 양 기관의 정보 및 자료공유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5월부터 9월까지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보육정보센터가 상호 협의하여 보육시설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초석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보육정보센터와의 아동학대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위한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신고의무자 직군 종사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신고율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중앙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제반 상담 및 정보이용 고도화, 보육활성화를 위한 전국 보육네트워킹,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지속적인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 · 청소년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위대한 기업 '더바디샵'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1년 5월 한 달을 '아동학대 집중 예방의 달'로 선정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더바디샵과 함께 'STOP&LOVE'(STOP 아동학대 & LOVE CHILDREN)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관련하여 아동학대예방공동캠페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5~6월에는 MBC '나누면 행복' 방송제작 및 송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 물품지원, 아동학대예방홍보대사 타이거JK&윤미래 부부가 제작한 STOP&LOVE 음원 배포 및 이벤트 공동 진행 등 다양한 공익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더바디샵 특정제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아동학대예방기금으로 후원하기로 협약하였다. 이는 아동학대문제에 기업 및 언론 등 다양한 체계들이 함께 협력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일련의 협력과정을 통해서 더욱 많은 체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바디샵은 2009년부터 '아동, 청소년 인권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더바디샵은 작년 한 해 동안 아동, 청소년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여 약 18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금년에는 아동 · 청소년 성폭력 및 성매매의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 상정을 위해 국회 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너무 산만해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하는 병", 즉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매우 약하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며,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정신 질환이다. 학령기 아동에게 흔히 보이는 질병 중 하나로 대개 7세 이전에 발병한다.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정상적인 학습, 대인관계, 학교생활에 큰 지장을 주며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20명 중 1명은 ADHD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 400만 명 가운데 3~8%인 약 25만여 명이 ADHD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등학생 20명 중 1명, 즉 한 반에 한두 명은 ADHD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ADHD 아동 대다수는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사회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서야 전문 기관을 찾는다. 그전까지는 아이가 보이는 남다른 행동이 비정상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를 기질이나 통과의례 정도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과거보다 ADHD가 잘 알려졌다고는 하나 많은 부모가 '설마 우리 애가?' 하는 심정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미룬다. ADHD는 조기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면 정상적인 삶을 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적절한 치료와 교육 없이는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갈수록 문제는 심각해져서 공격성이 드러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술·담배 같은 물질에 의존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미심쩍은 구석을 발견하는 즉시 도움을 청해야 하고, 그러려면 ADHD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대응법을 알아야 한다.

ADHD가 생기는 이유

ADHD 아동의 뇌를 조사한 결과, 주의집중과 행동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부분에 이상이 있음이 드러났다. 세포들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ADHD 아동을 분 부모 가운데 상당수가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비슷하다고 얘기한다. ADHD가 유전될 확률은 20~30% 정도다. 이런 연구 결과는 유전적 요인과 ADHD의 관계가 있다는 점만을 알려줄 뿐이지 그 원인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이 잘못 키워서 그런 것인지 물어보기도 한다. 임신 중의 합병, 음주, 스트레스 같은 태아의 정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을 때 ADHD의 발생 확률이 증가하기도 한다. 또, 부모의 학력, 경제 형편과 관련한 가정환경, 부모와의 관계 같은 사회적인 원인도 ADHD의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ADHD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ADHD가 생기는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다.

ADHD를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요법

ADHD를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속적인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을 병행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을 약물로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모가 거부감을 느끼지만 ADHD는 약물치료의 효과가 매우 좋다. 적절한 약물을 복용하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신의진** 교수

ADHD 아동의 70% 정도는 큰 효과를 본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약물에 적응하는 초기에 주로 나타나며 2~3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사라진다. 약 성분은 24시간 이상 몸에 남아 있지 않으므로 부작용이 걱정된다면 약을 끊으면 된다. ADHD 치료제는 중독이나 습관성 남용에 관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서적 문제를 치료해 주는 심리요법

약물의 효과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전체적인 치료효과를 높여줄 수 있는 심리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약물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아이, 부작용이 심한 아이들에게는 심리적, 사회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 높은 치료효과를 기대하려면 아이 자신은 물론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의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모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ADHD 아동의 치료효과가 일상생활에까지 이어지는지가 결정된다. ADHD 아동을 둔 부모를 위한 부모 교육도 필요한 경우 치료적으로 사용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식



2011년 1차 상담원 보수교육(전산시스템교육)

2월 8일(화)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교육이 KAIS 한국회계학원 전산교육실에서 실시되었다. 전산시스템 교육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아동학대사례 기록 및 입력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업무수행지침교육과 전산시스템교육 및 실습,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1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회의 및 최고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샵

2월 17일(목) ~ 2월 18일(금)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및 복지부 관계자 등 총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장회의 및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관장회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설치 대책, 상담신고건수 및 학대피해아동보호건수 감소에 따른 대책논의 등을 주요안건으로 논의하였다. '긍정과 열정의 리더십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진행된 최고관리자 워크샵은 강사들의 주제 강의와 학대로 사망한 광진구 3세 아동에 대한 추모식도 함께 진행하였다. 추모식에서는 아동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추모사 낭독과 보다 견고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2011년 1차 상담원 보수교육(법률교육)

2월 21일(월) 보건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교육이 개최되었다. '법무법인 충정'의 허용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된 법률교육은 아동복지법 및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개입을 가능하도록 돕기위해 마련되었다. '법무법인 충정'은 2008년 1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법률자문지원, 무료소송지원, 법률교육 등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전개하여 학대 받는 아동을 위한 권리보장에 힘쓰고 있다.



2011 한국암웨이 지원 학대피해아동 제주 올레길 체험캠프 실시

2월 22일(화) ~ 23일(수) 1박 2일 동안 한국 암웨이의 지원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제주 올레길 체험캠프를 실시하였다. 전국 학대피해아동 43명이 참여하였으며 제주 올레길 체험, 퍼시픽 랜드 관람, 성산일출봉 탐방, 승마체험, 일출랜드 관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대로 억눌린 정서적 상황을 해소하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2011년도 우체국예금보험 공익사업 Kick Off

2월 24일(목)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우체국예금보험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및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Kick Off 행사가 개최되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006년부터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쉼터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일상생활지원, 교육 · 문화체험, 희망캠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콘서트 등 다양한 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35개 쉼터를 지원한다.



2011년 1차~3차 자문위원회의

제1차(2월 25일), 제2차(5월 13일), 제3차(5월 27일)로 개최된 자문위원회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에 따른 대책마련,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으로 '조기발견 신고체계 구축방안',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 및 지원방안'이 논의되었다. 자문위원은 이재연 자문위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비롯하여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과), 나성웅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배기수 원장(경기도의료원), 안동현 교수(한양의대 신경정신과), 이명숙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리 대표), 이봉주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운주 과장(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이태수 교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정미경 국회의원, 정익중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허윤무 국장(SBS 프로덕션)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 타이거JK&윤미래 보그 화보촬영

아동학대예방홍보대사 타이거JK와 윤미래 부부가 3월 7일(수) 스튜디오 보리에서 화보를 촬영했다. '보그 코리아'와 함께한 이번 화보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더바디샵에서 진행 중인 'STOP&LOVE'(STOP 아동학대&LOVE CHILDREN)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의 상징 노란리본의 색상을 메인 컬러로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 타이거JK와 윤미래 부부는 결혼과 출산 이후 행복한 가정생활을 통해 모범적인 부부상을 제시하여 지난 2010년 11월 19일(금)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홍보대사로 위촉되었고 이번 화보촬영을 시작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 가수 김현철 대통령 표창

5월 5일(목)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 가수 김현철이 아동학대 예방에 힘써 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현철 홍보대사는 이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며, '홍보대사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인데 이런 상을 주시니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는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1 학대행위자 치료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및 워크샵

5월 24일(화) ~ 27일(금) 3박 4일의 일정으로 대한간호협회 연수원에서 '2011. 학대행위자 치료전문상담원 양성교육 및 슈퍼비전 워크샵'이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56명의 상담원과 임상심리사가 참석한 가운데 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도모하고 재학대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맞는 집단 치료프로그램 실시하여 행위자의 아동학대행위를 감소시키고 학대가정의 기능을 회복, 가족재통합을 도모하고자 실시되었다. 강의는 현실치료(우애령 박사), 집단상담(이서원 박사), 심리극(지경주 강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국가아동학대 전산시스템 재구축사업 실시

아동학대예방정책 수립마련에 기반이 되는 DB의 원활한 운용 및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아동학대전산시스템 재구축사업이 실시된다. 개발업체 입찰공고를 통해 4월 7일(목) 개발업체인 (주)이씨플라자와 최종적으로 용역계약을 맺었으며 감리업체로는 (주)씨에이에스와 용역계약을 완료하였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국가 D/B의 안정적인 보존 · 관리, 아동학대 통계시스템 구축,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정보관리체계 구축, 업무효율성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되며 2011년 3월~12월동안 실시된다.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소식

서울 · 인천권역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영)



1월 8일(토)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 아동학대예방세미나를 실시하였다. "학대피해아동의 놀이치료" 주제로 한 본 세미나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상황 및 심리치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홍현정)



1월 17일(월)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들을 치료하고 신고의무자인 의료인들이 아동학대조기발견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학대보호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앞으로 지역아동보호사업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양 기관과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아동보호를 위한 탄탄한 안전망이 구축되어질 것이다.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지현)



2월 22일(화)부터 5월 27일(금) 사이 4회에 걸쳐 인천뉴코아아울렛 문화센터에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성학대예방교육 및 유괴실종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교육의 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아동과 부모가 함께하는 체험식 교육의 형태로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경희)



5월 5일(목)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서명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좋은부모자가체크, '아동학대 O,X 퀴즈' 등을 통해 아동권리 및 학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본 행사는 인천광역시 주최하에 제8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함께 진행되었다.

경기 · 강원권역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정미)

4월 15(금)부터 4월 17일(일) 경기도청에서 '벚꽃과 함께, 가족과 함께' 벚꽃놀이 도청개방 행사를 맞아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은



도청을 방문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올바른 대처방안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열렸다.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경모)



5월 4일(수)부터 5월5일(목) 신능초등학교, 일산호수공원,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학교 및 일산경찰서,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조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선미)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설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해 '복사골봉틀사랑' 에서 직접 옷을 제작하여 제공해주었고 지속적으로 의복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복사골봉틀사랑' 은 재봉틀로 옷을 만드는 취미를 가진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동호회로 부천신나는그룹홈 아동들을 위해 직접 외출복, 내복 등을 만들어 후원해 주고 있으며 별도로 학용품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경환)



3월 28일(월) 아이코리아 화성시지회 회원을 아동지킴이로 위촉하여 '2011년 아동지킴이 발대식' 을 진행하였다. 아이코리아 화성시지회는 학대피해아동 지원프로그램 '아동지킴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사후관리, 정서적 지원 및 학대예방홍보사업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규창)



5월 5일(목) 제 8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장소인 남양주시청 야외광장 홍보부스에서 삼육대학교 자원봉사자와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STOP&LOVE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는 희망나무 노란리본달기 및 솜사탕, 아동학대예방홍보 풍선, 아동학대예방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신고방법(1577-1391, 129),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신자)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심리정서 장애 아동들 15명을 대상으로 심리 · 정서적 증상 완화 및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증진시키고자 '마음으로 나누는 세상' 이라는 주제하에 심리평가 및 언어평가, 놀이치료 및 언어치료, 주양육자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창수)



4월 22일(금)부터 24일(일)까지 2박3일동안 강릉시 옥계면 한국여성수련원에서 학대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 및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꿈愛캠프 "함께 꿈꾸는 세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프는 치료프로그램(미술치료, 원예치료)과 명랑운동회, 마술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캠프를 통하여 참가 아동들 스스로가 마음을 치유하고 이겨내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해소, 가치관의 재정립, 자존감의 회복 등 긍정적인 자아형성을 유도하였다.

충청권역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진현장)



4월 22일(금) 대전세이백화점(대표이사 권민웅)의 지원으로 학대피해아동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첫회기를 실시하였다. 첫회기에는 학대피해아동가정의 노후된 장판을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이 사업은 총 10회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신체적 ·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박민옥)



5월 13일(금)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들이 학대후유증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제천명지병원(병원장 하영수)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신속한 치료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학대조기발견에도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국명)

5월 17일(화) 옥천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98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



였다.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며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 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주진관)



5월 4일(수) 지역내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와 코레일의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인 GLORY 운동의 확산을 위해 코레일 천안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을 통해 Proud Rail Hub 사업으로 지정된 철도체험학습과 철도박물관 관람을 학대피해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천안관리역 봉사단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정서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윤여복)



3월 29일(화) 충청남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50명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충남지원단의 주최로 실시된 이번 신고의무자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아동학대신고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는 선서의 장도 마련하였다. 지원단장은 "지역사회 내 아동과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사항이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겠다." 고 전하였다.

호남권역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수정)



5월 4일(수) "2011년 아동학대집중 예방의 달"을 맞아 남원시 향교동 오거리 광장에서 남원경찰서, 남원시청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출퇴근 시민들에게 신고전화 홍보와 홍보물품을 배포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의 권리보호의 인식을 고취시키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상희)

4월 20일(수) 호남권역 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실무자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호남권역 케이스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학대피해아동 및 아동심리치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학대피해로 나타나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해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마인드를 재정립하는 시간이었다.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길원)



5월 5일(목) 어린이날 순천시 주최로 아동학대예방/미아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부스 내 STOP&LOVE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에서는 아동성범죄 예방서명 실시,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희망메세지 작성, 아동학대 시민인식조사, 사진 및 배너전시, 홍보물배포가 있었으며 출입구 미아예방캠페인에서는 행사장 방문 아동등반 가족들에게 미아예방 목걸이 이름표, 핸들링이름표를 배포하고 아동성범죄 예방 서명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총 1,718명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였고 이번 기회를 통해 순천 시민들에게 아동학대를 홍보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고취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전남목포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수경)



5월 28일(토) 전남 목포 평화광장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눔 1+1=3 바자회"를 개최하였다. "나눔 1+1=3 바자회"는 지역내 학대피해아동의 치료비 후원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으며 바자회 물품 및 중고 물품 판매, 먹거리 장터, 무료 페이스페인팅, 임신 앞치마 체험, 즉석 가족사진 촬영 및 나눔 가두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결식아동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영남권역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애숙)



5월 13일(금) 구미시 '산어리' 식당의 후원으로 '산어리' 식당에서 일일나눔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학대피해아동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판매물품들이 전시되었고, 구미 LG디스플레이 OLED팀과 구미1대학, 경운대학교 등 자원봉사자 100여명과 각계각층의 인사들,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여하여 아동학대예방 기금마련에 동참했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성환)



4월 23일(토) 진주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진주시 내 보육시설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라는 주제로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을 통해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육시설종사자들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아동학대 조기발견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고의무자 활동 증가와 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조윤영)



4월 27일(수)에 서 28(목) 1박 2일간 한국마사회 연제지점의 지원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권리놀이터' 아동권리교육전문가 양성과정을 실시하였다. 아동학대예방사업 및 아동권리의 이해, 효과적인 교수법, 전년도강사 초청 강의비법 특강, 개별 시연실습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으며 총 13명의 지원자들이 교육을 수료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과 전년도 활동 강사를 초빙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전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제주권역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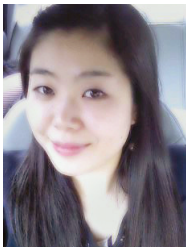


4월 27일(수) 제4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사업을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서 진행하였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아동권리헌장 낭독, 결의문 낭독, 노래공연, 소망비행기 날리기, 아동학대 추방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지속적인 기념행사를 통해 아동학대예방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사회내에서 아동학대가 추방될 수 있길 기대한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1년 아동학대예방교육 인형극에 마술을 접목시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마술을 통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칫 산만할 수 있는 교육시간에 주의를 집중시켜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한 흥미를 이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다양한 교육방법을 접목시켜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고자 노력하는 김은영 상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김은영입니다. 어느덧 상담원으로 근무한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어온 비전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자.' 입니다. 왜 뜬금없이 제 비전 얘기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시죠? 저는 이 비전을 향하여 항상 고민하고 소망하며, 꿈꾸어왔습니다. 그런 제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된 것은 이 비전을 향한 첫 번째 날개짓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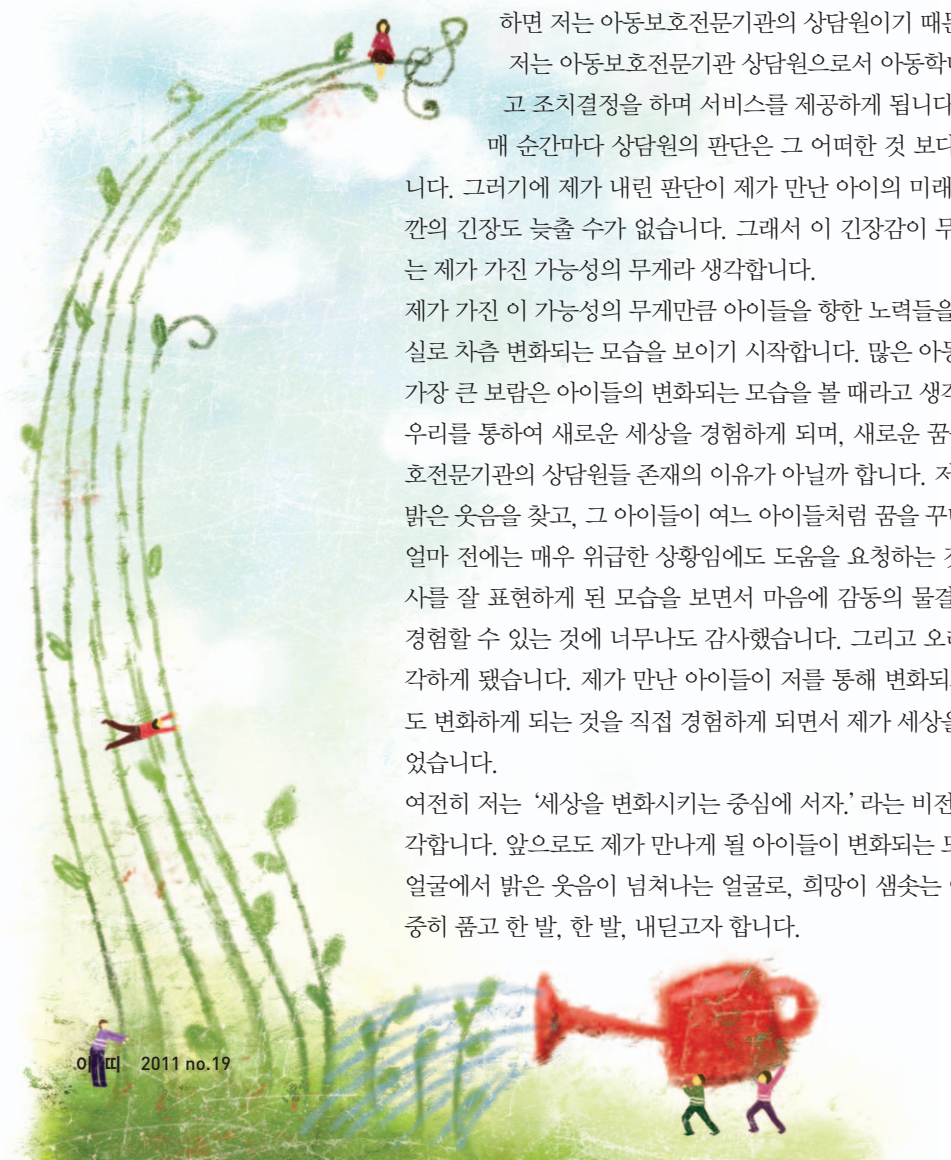
어느 누구는 제 비전을 보고,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있는 이 서귀포에서도 이 비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조사를 나가고 조치결정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고접수에서부터 서비스제공까지 매 순간마다 상담원의 판단은 그 어떠한 것 보다 아이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기에 제가 내린 판단이 제가 만난 아이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잠깐의 긴장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감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가진 가능성의 무게라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이 가능성의 무게만큼 아이들을 향한 노력들을 기울이면 아이들 역시 그 노력의 결실로 차츰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만난 아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 존재의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저 역시 제가 만난 아이들이 저를 통해 밝은 웃음을 찾고, 그 아이들이 여느 아이들처럼 꿈을 꾸며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매우 위급한 상황임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아이가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출렁였습니다. 저는 이런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소망해오던 저의 비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이 저를 통해 변화되고, 그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변화하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자.' 라는 비전을 이루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만나게 될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상처로 얼룩진 그 얼굴에서 밝은 웃음이 넘쳐나는 얼굴로, 희망이 샘솟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제 비전을 소중히 품고 한 발, 한 발, 내딛고자 합니다.





● to. **홍현정 관장님** 언제나 앳지 있고, 카리스마 넘치시는 우리 홍현정 관장님을 칭찬합니다. 직원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시려는 참된 리더쉽을 보여주시는 관장님 덕분에 5명인 소수정예 기관이지만, 어느 자리에서도 빛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는 옆집누나와 같은 친근함으로 다가오시려는, 소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관장님. 덕분에 가족 같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언제나 홍현정 관장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 From. 최인용 상담원 ● to. **최인용 상담원**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일한 홍일점, 최인용 선생님! 모든 일에 최선과 열정을 보이시고 소신을 지키시는, 최인용 선생님! 미친 존재감적인 분위기 메이커로서 웃음 바이러스를 전달해주시는, 최인용 선생님! 이제는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목표까지도 성취할 수 있는, 2가지의 모든 기회도 잡으시길 기도합니다^^ From. 임슬기 상담원



● to. **임슬기 상담원** 우리기관의 대표 매!력!덩!어!리! 임슬기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터프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마음 여리고, 요리도 잘하는 애교만점 천상여자랍니다! 바쁜 와중에도 항상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의 에너지와 열정을 볼 때면 항상 놀라울 따름입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며 우리 함께 오래 일해보아요! 올해는 꼭 샘이 의지할 수 있는 훈!남! 만나시구요. From 김누리 상담원 ● to. **김누리 상담원** 아기피부같은 하얀 얼굴, 동그란 눈망울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따뜻한 가슴과 열정적인 마인드로 상담까지 잘 해내는 그녀는 매력덩어리 우후훗! 이러한 매력발산으로 올해 멋진 훈남까지 만나 맘껏 매력 발산하기를...♡ From 허지숙 팀장 ● to. **허지숙 팀장** 우리 팀장님은 한송이 수선화 같이 고운 심성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신사임당을 닮아 섬김의 리더쉽으로 기관과 상담원과 모든사례 아동및 가족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온몸의 향기로 주변을 감싸는 헌신의 모습에서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진학하여 자신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우리 팀장님!!! 우리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우리 팀장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From 홍현정 관장님









우리 아이의 교육, 만족 하십니까?

짐보리 프로그램을 경험한 엄마들의 90%가
'짐보리를 다른 이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좋은 만큼 나누고 싶어지는 우리 아이 첫 교육, 짐 보 리

발행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행인 **장화정** 발행일 **2011년 6월** 편집인 **이지미, 김기해** 디자인 **일탈기획**
서울시 강남구 역삼 2동 781-46 Tel 02-558-1391 Fax 02-558-1339 www.korea1391.org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 제 24조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